

남을 자와 떠날 자...벤투호 K리거 생존 갈림길

27명 중 25명이 K리거...21일 몰도바와 평가전 마지막 시험대로 월드컵 최종예선 2연전에 해외파 6명 합류...발탁 안되면 짐 싸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 확정 지으려는 벤투호가 다시 전력 점검에 나선다. 파울투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몰도바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대표팀은 오는 27일 레바논, 2월 1일 시리아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7·8차전 원정경기를 대비해 지난 9일 출국, 터키에서 담금질을 해왔다. 이번 몰도바전은 지난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아이슬란드전에 이어 대표팀의 새해 두 번째 경기다. 대표팀은 아이슬란드전에서는 기본 좋은 5-1 대승을 거뒀다. 몰도바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81위(한국 33위)로, 월드컵 본선에 오른 적이 없는 나라다.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1부 9패(5득점 30실점)로 F조 6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몰도바는 18일 우간다와 치른 친선 경기에서는 2-0으로 앞서다가 페널티킥으로 두 골을 내주고는 2-3으로 역전패했다. 우리나라는 몰도바와 2018년 1월 터키 전지훈련 때 딱 한 번 대결해 김신욱의 골로 1-0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승패보다는 대표팀의 전력을 다지고, 벤투호가 추구하는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가려내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월드컵 최종예선 2연전에 동행할 선수를 추리는 시험대라 선수단 내 긴장감은 팽팽하다. 현재 훈련 중인 선수는 총 27명이다. 이 중 골키퍼 김승규(가시와 레이솔)와 중앙수비수 권경원(감바 오사카)을 제외한 25명이 K리그 소속 선수들이다. 아이슬란드, 몰도바전은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에 열리는 경기가 아니어서 벤투호의 해외파 핵심 전력들은 합류하지 못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17일 김민재(페네르바체), 정우영(알사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황인범(루빈 카잔), 이재성(마인츠), 황의조(보르도)를 이번 월드컵 최종예선 2연전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참가는 일단 보류한 채 상황을 지켜본 뒤 발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벤투 감독은 월드컵 최종예선을 치르는 동안 25명 남짓을 선발해 대표팀을 운영해왔다.

해외파 합류가 예고된 만큼 현재 소집멤버 중 일부는 몰도바와의 친선경기가 끝나면 귀국길에 올라야 한다. 제외되는 선수 수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6명은 이번 월드컵 최종예선 2연전을 함께 할 수 없다. 손흥민, 황희찬의 회복 상태에 따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주전 골키퍼 김승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대표팀에 합류한 권경원보다는 25명의 K리거 중에서 짐을 쌀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이슬란드전에서는 17명이 그라운드를 밟았다.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데뷔전을 치른 김진규(부산)와 엄지성(광주)은 골 맛까지 보면서 벤투 감독 앞에서 잠재력을 드러내 보였다. 그런가 하면 역시 처음 대표팀에 발탁된 김대원(강원), 고승범(김천), 최지욱(성남)을 비롯해 아직 A매치 경력이 없는 조영욱(서울) 등은 아이슬란드전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A매치 2경기를 뒀던 이동준(울산)도 결정했다. 이들을 보며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될 몰도바전을 베풀 수밖에 없다. 대표팀은 몰도바와 대결한 뒤 22일 터키 이스탄불로 이동해 훈련을 계속하다가 25일 레바논으로 들어가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을 치를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난 15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친선경기. 백승호(8번)가 골을 넣고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우는 1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 단식 2회전에서 데니스 샤프발로프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권순우는 풀세트 접전 끝 2-3으로 아쉽게 졌다. /연합뉴스

권순우, 풀세트 접전 끝 아쉬운 패배

호주오픈테니스 2회전서 탈락 여자 세계 1위 바티 3회전 진출

권순우(54위·당진시청)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7500만 호주달러·약 644억원)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권순우는 1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 단식 2회전에서 데니스 샤프발로프(14위·캐나다)에게 2-3(6-7(6-8) 7-6(7-3) 7-6(8-6) 5-7 2-6)으로 역전패했다. 이날 권순우가 상대한 샤프발로프는 지난해 윌

블던 4강까지 올랐고, 2020년 9월 세계 랭킹 10위에 올랐던 선수다. 2020년 US오픈 2회전에서 샤프발로프에 당한 1-3(7-6(7-5) 4-6 4-6 2-6) 패배 설욕을 노린 권순우는 이날 3세트까지 2-1로 앞서며 3회전 진출 가능성을 부풀렸으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4시간 25분 접전 끝에 분패했다. 권순우는 이번 대회 2회전 진출 상금 15만4000 호주달러(약 1억3000만원), 랭킹 포인트 45점을 받았다. 권순우의 메이저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은 지난해 프랑스오픈 3회전이다.

이날 경기에서 서브 에이스 29-3, 공격 성공 횟수 81-29 등으로 샤프발로프가 압도한 가운데 권순우는 침착한 수비와 코스 공략으로 4세트 중반까지 오히려 경기 주도권을 잡았으나 그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한편,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애슐리 바티(호주)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3회전에 진출했다. 바티는 이날 대회 사흘째 여자 단식 2회전에서 루치아 브론제티(142위·이탈리아)를 2-0(6-1 6-1)으로 완파했다. 2019년 프랑스오픈과 지난해 윌블던에서 우승했지만 고국인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오픈에서는 아직 우승이 없는 바티는 3회전에서 카밀라 조르지(33위·이탈리아)와 16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연합뉴스

“월드컵 티켓 잡고 정상까지 가보자” 한국 여자축구 21일 아시안컵 시작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3회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본선 출전권 획득과 함께 아시아 정상 도전에 나선다.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21일 인도 푸네의 시리 시브 차트라파티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베트남과의 조별리그 C조 1차전으로 2022 아시안컵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대회에선 2023년 호주·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는 여자 월드컵 출전권 획득이 우선 과제다. 5위 안에 들어야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대표팀은 5위 진입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엔 아시아 정상까지 노려보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여자 아시안컵은 1975년 시작해 올해가 20회째로, 8차례 정상에 오른 중국이 최다 우승국이다. 최근 2차례 대회(2014·2018년)에선 모두 일본과 호주가 결승에서 맞붙어 일본이 우승했고, 중국이 연속 3위에 올랐다. 2020 도쿄올림픽 때도 개최국 일본 외에 호주와 중국이 예선을 통해 아시아에 걸린 본선 진출권을 가졌다가 아시아 여자 축구에 ‘3강’이 형성된 모양새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으나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때 플레이오프에서 중국에 져 사상 첫 본선 문턱에서 좌절하는 등 벽을 완전히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1991년부터 나온 여자 아시안컵에선 결승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준결승에만 4차례(1995·2001·2003·2014년) 진출, 최고 성적은 2003년의 3위다. 한국 여자 축구의 사상 첫 외국인 사령관인 벨 감독은 기존 강호들로부터 아시아 여자 축구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부를 드러내 왔다. 지난해 10월, 11월 A매치 기간에 미국, 뉴질랜드와의 평가전 등으로 따듯한 모의고사를 치른 대표팀은 대회를 앞두고는 경남 남해에서 담금질을 마쳤다. ‘에이스’ 지소연(헬스 위민)을 필두로 조소현(토트넘), 이금민(브라이턴) 등 ‘유럽파’들은 물론 장승기, 최유리(이상 현대제철), 추효주(수원 FC) 등 국내에서 기량을 꽃피우고 있는 선수들이 최종 엔트리에 승선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에선 12개국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2위, 그리고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2개 팀이 8강에 올라 단판 승부로 우승팀을 가린다. 첫 관문인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베트남, 미얀마, 일본과 C조에서 경쟁한다. 미얀마와는 24일, 일본과는 27일 각각 맞붙는다. 이 조에선 한국과 일본이 1위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평창 패럴림픽 금’ 신의현, 세계선수권 은메달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현(42)이 설상 종목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전망을 밝혔다. 신의현은 18일(현지시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2021 장애인 설상 종목 세계선수권대회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좌식 18km에서 51분42초 08의 기록을 냈다. 그는 러시아의 이반 골롬코프

(51분14초05)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노르딕 철인’ 신의현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7.5km 좌식 경기에서 우승해 한국에선 처음으로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거머쥔 선수다. 3월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그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하며 견제함을 뽐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특송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3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어나더 라운드, 도쿄 리벤저스
4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5관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
6관 경관의 피
9관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7관 세네케를 썬2게더, 하우스 오브 구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8관 세네케를 경관의 피,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모 콘서트 I 로미오와 줄리엣

일시 : 2022. 01. 27.(목)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